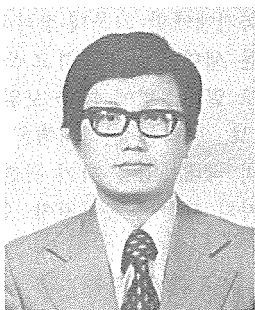


열대의학과 기생충 질환

- 많은 연구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



채 종 일

열대의학이란 열대성 질환을 비감염성 각종 장기의 질환, 감염성질환, 독성식물 및 동물에 의한 중독질환, 영양결핍증 및 열(熱)과 관계된 질환(일사병) 등으로 기술할 수 있다. 특히 원충 및 요충 감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열대의학(熱帶醫學: *Tropical Medicine*)은 무더운 열대성 기후를 가진 지역에서 특히 빈발하는 각종 질병(매우 광범위한 의미의)을 연구하고 진단 치료하는 의학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은 열대지방(혹은 아열대지방)에서 특히 높은 유행율과 유행을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런 질병은 열대지방에만 국한된 것만은 아니고 온대 및 한대지방까지도 퍼져있는 경우가 많다.(결핵, 바이러스성 간염, 말라리아, 회충증 등) 따라서 열대의학이란 사실상 의학 전반의 측면에서 볼때 매우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러면 열대의학에서 다루는 것은 주로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열대의학」(*Tropical Medicine*)이란 교과서를 저술한 HUNTER에 의하면 열대성 질환을 비감염성 각종 장기의 질환, 감염성질환, 독성 식물 및 동물에 의한 중독질환, 영양결핍증 및 열(熱)과 관계된 질환(일사병 등)등으로 나누어 기술하였고 특히 이들중 감염성 질환을 가장 크게 취급하고 있다. 감염성 질환중에서는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성 감염, 진균

⑥ 세계 보건 기구(WHO)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유행하며 감염율 및 사망율등이 높은 열대성 질환 6가지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연구와 관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질환은 말라리아, 주혈흡충증, 리슈마니아증, 수면병, 사상충증 나병등이다. 나병을 제외하고는 5가지가 모두 기생충성질환이다 ⑥

(곰팡이)감염도 중요한 것이 많으나 원충(protozoa) 및 윤충(helminth) 감염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들고 있다. 특히 말라리아를 비롯한 원충감염은 열대지방의 중요 사망원인이 되고 있으며 열대지방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으로 부각되어 있다.

이렇듯 열대의학에서 기생충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해외여행 인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영국과 같은 나라는 아예 병원에 열대의학과를 따로 설치해 놓고 열대병에 걸린 환자만을 모아 진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병동을 담당하는 의사나 간호원은 반드시 기생충질환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유행하며 감염율 및 사망율 등이 높은 열대성 질환을 6가지 선정하고 집중적인 연구 및 관

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질환은 말라리아(Malaria), 주혈흡충증(Schistosomiasis), 리슈마니아증(Leishmaniasis), 수면병(Trypanosomiasis), 사상충증(Filariasis) 및 나병(Leprosy)이다. 나병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가지가 모두 기생충성 질환이며 3가지는 원충, 2가지는 윤충에 의한 감염증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주혈흡충, 리슈마니아증 및 수면병은 전혀 유행한 적이 없으며 말라리아도 한때 매우 높은 유행이 있었으나 10여년전부터는 거의 박멸된 상태이다. 사상충증은 말레이사상충(*Brugia malayi*)이 제주도와 전남 해안지방에 다소 유행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새로운 유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병은 물론 우리나라에 꽤 많은 감염자가 있으나 정확한 실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열대성 질환이 우리나라



TRC- 1 트리아토마 버그(*Triatoma bug*)가 흡혈할 때 이 버그가 배설한 분변에 있던 쿠르쯔 트라파노소마이 흡혈한 곳을 통해 감염

열대의학은 자칫하면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하여 가볍게만 지나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해외 파견자에 대한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의료의 수출과 의학이라는 학문의 수출을 위해서도 국내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

라에 유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지로 우리나라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열대지방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인구가 무척 늘어났으며 이들중 상당수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열대성 질환에 감염되어 귀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동남아 등지를 여행하다가 고열과 오한이 계속되어 어떤 사람의 경우 말라리아 환자로 판명된 일도 많으며, 리슈마니

아증은 공식적으로 보고된 경우만 해도 20~30례가 넘는다. 감염례는 적으나 주혈흡충감염도 확인된 바 있다. WHO에서 지정한 6대질환이외에도 열대지방에서 감염되어 들어오는 기생충성 질환은 몇가지가 더 확인되었다.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군도에 유행하는 광동 주혈선충 (*Angiostrongylus cantonensis*)이라는 선충류가 있는데 이 기생충은 대형패류 또는 달팽이가 중간숙주이다. 얼마전에 동남아시아에 다녀온 한국인 몇명이 동시에 발생한 급성 뇌막염 증세로 입원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광동주혈선충에 걸린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 발표된 적이 있다. 이들에게 과거력을 물어본 결과 그 지방에서 고급요리로 통하는 대평패류 (*Achatina* SP)를 대접받고 어쩔수 없이 먹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감염원이었음은 거의 확실하다.

각각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본인이 피해를 크게 인식하지 않으나 소장(小腸)의 염증, 복통 및 설사 등을 유발하는, 중동지방, 이집트 등지에 유행하는, 이형흡충류 (*Heterophyids*)에 감염된 근로자 및 그 가족이 몇명 보고된 적도 있다. 이들은 중동지방에서 거주하면서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송어, 틸라피아(*Tilapia*) 등 해안 근처에서 잡히는 생선을 회(膾)로 먹어 이 흡충류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한례는 귀국전부터 소화기 증상이 심하여 소화제를 사용하고 있었던 환자인데 뒤늦게 이형흡충류의 감염이 있었음을 알게된 것이다. 이

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각종 열대병에 걸린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외국을 여행할 때에는 반드시 그 지방의 특유한 열대풍토성 질환이 무엇인지 알고 적당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사실상 미국, 영국 등은 해외에 많은 국민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열대의학에 대하여 매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의 연구 및 관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저개발국일수록 열대병이 더 만연되고 이를 관리할 전문인력과 예산은 더욱 없는 형편이므로 선진국의 자국민 보호라는 입장에서 이는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본도 최근에는 해외교류가 매우 활발해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나라에는 미리 전문학자들을 파견하고 열대기생충성질환은 물론 각종 열대병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게 한 다음 파견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난 후에 교류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열대의학은 자칫하면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가 없다하여 가볍게만 지나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해외파견자에 대한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의료의 수출과 의학이라는 학문의 수출을 위해서도 국내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고 많은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필자=서울의대 기상중학교수·의박)